

## · 신바람 순, 신바람 순장님 ·

서초공동체 베품1순장 백송웅 장로. 30년 공군생활을 한 '베테랑 조종사'인 그가 주님의 빨간 마후라가 되어 '베테랑 순장'으로 섬긴다.

### 베테랑 순장의 세가지 비결

그를 '베테랑 순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 백 장로에게는 순목양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백 순장은 순의 어떤 일이든 순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어쩌면 '유도한다'는 말은 백 장로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넘긴 나이에 도 젊은이 못지 않는 적극성과 패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새 일을 벌이는(?) 백 순장의 제안에 모든 순원들은 자연스레 동화되기 때문.

1년 반전이다. 순원이 열 여섯명으로 늘었다. 순예배 장소도 좁고, 자꾸 '나 하나쯤이야 안 나와도 모르겠지'하며 빠지는 순원이 많아졌다.

분순을 해야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모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분순의 필요성과 분순 후속조치, 분순의 방법을 순원들에게 틈나는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예비순장인 최도성 장로(베품8순) 세우기에도 정성을 다했다.

1년전 분순을 하던 날 모두가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베품1순을 베품2순으로 분가시켰다. 분순 후 백장로가 제시한 후속조치는 베품1순과 2순의 연합 모임.

각 순에서 경조사가 생기면, 명절날에 큰덕에 친척들이 모이듯 모두 백장로 집에 모인다. 이 때 큰 며느리처럼 모든 순원들을 다독거리는 몫은 아내 이은희 권사의 몫이다.

### 능력의 비밀, '주 앞에 작은 자'

두번째, 백순장은 순원들의 가족들을 세심하게 챙긴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새신자들에게는 깜짝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어버이날이 있던 최근에는 믿지 않는 순원의 부모님들께 카네이션과 함께 순원 모두의 축하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우송해 드렸다. 또한 새가족이 순에 편성되면, 순원들 모두 카드를 보낸다.

카드에 순원들의 환영의 메시지를 가득 실어, 얼마나 새가족을 기다리는지 전한다.

세번째, 백장로는 순원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한다. “순원들의 기를 살려 주어야지 신나서 순예배에 나오고 신바람나게 예수님 믿어요”

올해 팔순이신 이희순 권사님은 믿음의 선배이시다. 그래서 순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 권사님께 늘 의견을 듣는다. 많은 연세로 여타의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는 이 권사님에게 백 순장의 ‘의존’(?)은 이 권사님이 늘 순예배에서 신바람 나게 되는 이유다.

또 전상원 집사는 예비순장으로 고교 생물 교사이다. 그의 전문 분야인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의뢰해 그의 전문성을 격려했다. 그는 힘을 얻어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친다.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 한상옥 집사는 의료선교에 헌신적인 임직자 훈련 모범생이다. 순모임의 대소사에 그는 항상 ‘찍사’가 돼 맹활약을 한다.

신바람 나는 순, 신바람 나는 순장님 백송웅 장로. 그의 이런 신바람의 비밀은 무엇일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대상29:11) 말씀은 그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다.

“광대하신 그분 앞에 난 너무나 왜소하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두려울 일이 없어요”. 백 장로의 ‘신바람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앞 ‘작은 자의 겸손’ 때문이 아닐까?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